

연구보고

전통 생활용품 활용도 실태 조사

Survey on the practical use of traditional living appliances

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
조 영 숙
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
이 한 기

Dept. of Living Environment, Rural Living Science Institute
Cho, Young-Sook
Dept. of Living Environment, Rural Living Science Institute
Lee, Han-Ki

〈목 차〉

I. 서론	IV. 연구결과 및 고찰
II. 선행연구 고찰	V. 요약 및 결론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gure out the actual situation of possession and use of traditional living appliances in the rural area, so as to provide plans for preservation and succession of traditional living appliance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200 households in 8 rural areas classified by geographical zone. Traditional living appliances were divided into clothing · food · housing living appliances, play tools, and the others. As a result, the degree of using the traditional living appliances is 46.5%(in respect of “often use”). The need for preserving and using the traditional living appliances in modern society was 68.5%(in respect of “a little need”). The

level of preservation and use of the traditional living appliances was relatively low except for food living appliances.

In conclusion, the suggested directions for developing traditional goods to preserve and succeed traditional living appliances are as follows; ① Developing traditional living goods peculiar to a certain locality ② Developing goods with various uses; display, ornament, living appliances, memorial, etc. ③ Developing goods on the process and technique of making traditional living appliances. ④ Providing information and education on excellence of traditional living appliances.

Key words: tradition, living appliances, rural area

I. 서론

생활용품이라 하면 각종 그릇이나 가구 등 견인성과 조형성이 요구되는 생활용기와 장식품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는 무한히 다양하며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다. 반만년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전통 생활용품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는 언제나 함께 했으며 또한 그 지역 자연 속에서 얻은 재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그 시대 사람들의 솜씨와 예술성을 발휘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전통 생활용품은 민족의 혼과 열이 가장 진하게 배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간장, 된장, 고추장 등 발효식품을 지켜온 장독은 단순한 장을 갈무리하던 항아리의 의미를 넘어서서 할머니와 어머니들이 정한 수를 떠놓고 집안의 안녕을 빌던 신앙심이 깃들여 있던 생활용품이기도 하다.

그러나 생활이 다양해지고 풍요로워지면서 우리 주변에서 전통 고유의 생활용품들이 사라져 가고 있다. 문화 발전의 원동력이며 민족의 삶과 함께 해 온 생활용품이 산업화의 대량생산에 밀려 자취를 감추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고려자기, 청자 등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생활용품들은 서로들 소장하려 하지만 옛 서민들의 애환과 생활상을 알 수 있는 생활용품들은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 시대에 과학문명이, 최첨단 공학이 아무리 발달하였다해도 아직까지 우리 조상들의 슬기와 지혜가 담긴 생활용품을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용기는 인체에 해로운 산성 성분은 제거하고 유산균

을 보존하는 특성이 있으며, 율칠기는 음식을 담아 둘 경우 소화를 돕는다는 이유로 조상들이 즐겨 사용하였다(고도사, 1998).

다행스럽게도 현대에 와서 전통의 우수성과 그 전승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정립하려는 움직임들이 일고 있다. 지역적 전통들의 파괴와 과거의 급속한 파괴로 많은 사람들이 생활유물에 대한 욕구를 느끼게 되고 현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과거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문화유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사라지거나 등한시되고 있는 전통 생활용품은 민족문화 중에서도 물질문화로서 생생한 사회문화적 표현을 담고 있어서 연구할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 부분적인 사례연구는 이루어져 왔지만 종합적인 실태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필요성에서 전국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전통 생활용품의 보유정도와 활용실태를 분석하고 현대에 와서 전통 생활용품이 활용되고 있는 사례를 조사하여 전통 생활용품의 보존과 전승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농촌주민의 전반적인 전통생활용품 활용정도는 어떠한가?
- 2) 농촌주민의 전통생활용품의 현대적 활용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 3) 전통생활용품별 보유정도는 어떠한가?
- 4) 전통생활용품별 활용정도는 어떠한가?
- 5) 가구특성별 전통생활용품의 보유정도는 어떠한가?

II. 선행연구 고찰

인류가 사용한 물질문화, 물질민속, 살림살이에 대한 연구는 그 동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여 왔으나 20세기 중반을 기점으로 쇠퇴하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점차 사회구조와 조직의 분석, 현대사회의 현실적 문제 해결 등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민속물질에 대한 연구가 단순하면서도 시간과 정력을 요하는 등의 요인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김광언, 1986).

1. 전통생활용품의 정의

전통생활용품이란 서민들이 그 지역의 의식주 생활을 영위하면서 필요에 따라 직접 만든 전통적으로 전승되어온 물질문화 자원들의 총칭이라고 할 수 있다. 민구라고도 하는데, 민중들의 생활에 널리 쓰이던 도구로서 재료, 용도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

2. 전통생활용품의 분류

전통생활용품을 분류하는 기준이 다양할 수 있겠으나 크게 생산 또는 생업에 관한 것, 두 번째는 의식주에 관한 것, 세 번째는 이 두 가지에 포함되지 않은 것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생산 또는 생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는 채집구, 사냥구, 어업구, 농업구, 축산구, 길쌈구를 들 수 있고, 또 이것을 만드는 연장을 들 수 있다. 둘째, 의식주에 관한 것으로는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의생활구에는 여러 가지 옷, 장신구, 화장품, 신발류, 식생활용구에는 조리구, 저장구, 식기류, 소반류, 주생활용구에는 집, 가구, 등화구, 보건의생구 등이 있다. 세번째 기타류로서 교통운반구, 신안주술구, 놀이구, 도량형구 등이 있다(김광언, 1986).

몇몇 문헌에 제시된 분류기준 및 종류는 다음과

같다(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5; 온양·안동 박물관도록; 민속학회편, 1999).

1) 재료에 의한 분류

- 돌: 절구, 돌공이, 떡돌, 맷돌, 풀매, 돌슬, 납비 등
- 나무: 절구, 절구공이, 귀함지, 함지박, 채, 목판, 매통, 떡판, 국수판, 국수틀, 기 림틀, 메주틀, 홍두깨, 나무주걱, 찻다리, 물바가지, 도마, 다식판, 떡살 등
- 짚, 대, 버들: 키, 광주리, 상자, 고리, 채반, 채, 어레미, 용수, 조리, 시루밑 등
- 철, 동: 숯, 양푼, 시루, 주전자, 대접, 사발, 수버, 접시, 종지, 납비, 풍로, 국자 등
- 옹기: 동이, 소래기, 시루, 항아리, 바재기, 독배기, 보리쌀옹배기, 흙풍로 등
- 사기: 사발, 대접, 접시, 탕기, 종지, 보시기, 주전자, 떡살 등

2) 용도에 의한 분류

- 가) 병이, 채식, 약과류를 만들 때 쓰이는 용구
 - 떡쌀을 준비할 때 쓰이는 기구: 옹배기, 함지, 조리, 소쿠리, 바가지, 이남박 등
 - 가루를 만들 때 쓰이는 기구: 방아, 나무절구, 나무절구공이, 쇠공이, 채 등
 - 떡을 찌는데 쓰이는 기구: 숯, 시루, 질압통, 채반, 정그레, 시루밑 등
 - 떡을 치는데 쓰이는 기구: 안반, 떡매, 돌떡판 등
 - 떡모양을 만드는데 쓰이는 기구: 떡살, 칼, 다식판, 약과판 등

나) 저장용 식품을 만들 때 쓰이는 용구

- 김장, 간장, 고추장, 된장을 담글 때: 큰독, 항아리, 단지, 큰시루, 채, 용수, 절구, 절구공이, 함지박, 큰막대, 배보자기, 자배기, 질동이, 양푼, 옹배기, 주걱, 소쿠리, 되술, 찻다리, 조리, 시루밑, 이남박, 바가지, 도래방석, 모말, 멍석, 쇠물

바가지, 메주고리 등

- 장아찌를 만들 때: 향아리, 단지, 납작한 돌 등
- 건조할 때(말릴 때): 밭, 돛자리, 가마때기, 명석, 도마, 칼, 숯, 채반광주리 등
- 염장식품(소금에 절이는 것)을 만들 때: 오지그릇
- 포나 작은 생선을 말릴 때 쓰이는 기구: 채반, 광주리, 소쿠리 등

4) 수납, 배선에 쓰이는 용구

- 수납용구: 찬장, 뒤주, 향아리, 목판, 찬합, 동구리, 소쿠리, 바구니, 장독대, 김 치광, 채반, 광주리 등
- 배선용구: 각종상, 보시기, 쟁첩, 종지, 옹파리, 접시, 술잔 등

이 연구에서는 전통 생활용품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그 중 대표적인 50여 항목과 기타 관혼상제용품을 선정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조사도구

전통생활용품 활용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조사도구는 연구자가 미리 작성한 질문지로서 예비조사를 통해 보완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일반적 특성: 세대구분, 연령, 학력, 가족형태, 직업, 농사작목, 생활정도
- ② 전통생활용품 활용정도 및 현대적 활용에 대한 인식, 현대적 활용이 불필요한 이유
- ③ 전통생활용품 보유 및 활용실태
 - 전통놀이용품: 연, 윷, 바둑/장기판
 - 전통식생활용품: 광주리, 소쿠리, 등구미, 놋그릇, 다식판, 떡고리, 채반, 체, 바가지, 함지박, 복조리, 시루, 맷돌, 절구, 식초병, 가마솥, 약탕기, 뒤주, 옹기
 - 전통의생활용품: 갓, 망건, 짚신, 미투리, 한복
 - 전통장신구: 가락지, 귀주머니, 노리개, 비녀, 싹지

대 분류	중 분류	세 분류	생활용품명
의생활용품	의복류	외출복 작업복	한복 도롱이
	모자·신발류	모자류 신발류	갈모, 갓, 망건, 병거지, 사모, 샷가 등 나막신, 등구니신, 설피, 진신, 짚신, 미투리 등
	피복관리용품	직조도구 바느질·세탁 도구	베틀, 바디, 북 등 실패, 골무, 자, 다리미, 다듬이돌, 인두 등
	장신구류	머리꾸밈 장신구	떨잠, 뒤꽂이, 비녀 등 가락지, 귀주머니, 싹지, 장도 등
식생활용품	부엌세간	조리용구	가마솥, 바가지, 메주틀, 떡살, 맷돌 등
		저장·운반 용구	뒤주, 함지박, 소쿠리, 바구니, 옹기, 등구미, 목판 등
주생활용품	가구류	실내장식 문방구류	경대, 농, 돈궤, 반닫이 등 서류함, 서안, 사방탁자 등
놀이용품	놀이용품	소집단용품 대집단용품	널, 쌍륙, 연, 윷, 제기, 사 물놀이 등 줄다리기줄 등
기 타	농기구·계절나기	농기구 계절나기	부채, 화로

- 전통피복관리용품: 골무, 다리미, 다듬이돌, 인두, 흥두께
- 전통가구: 경대, 농, 문갑, 반닫이, 이층장
- 기타용품: 담뱃대, 되, 말, 명석, 지게, 부채, 삼태기, 장군, 키, 체이, 빗
- 그의 결혼식, 장례식, 제사 등 관혼상제시에 사용하는 전통생활용품

전통생활용품 보유정도는 ‘있음, 없음’으로 구성하였고, 활용실태는 자주 사용, 가끔 사용, 거의 사용 안함, 장식용으로 구성하였다.

2. 조사방법 및 분석방법

전통생활용품 보유와 활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농촌가구 200호를 추출하여 농촌가구주나 주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농촌가구 200호는 다음과 같이 선정되었다. 전국 8개도(제주도 제외)를 지대별(도시 근교, 중간지, 평야지, 산간지)로 구분하여 각 도에서 지대별 특성을 대표하는 1개군씩을 뽑고, 각 군

에서는 농촌지도소의 협조로 지대별 특성을 가장 대표할 수 있는 마을(행정리)을 선정하여 각 마을에서 25가구씩 선정하였다.

조사일시는 1998년 6월 22일~7월 11일에 걸쳐 실시되었고 현지조사는 조사보조원의 협조를 받아 연구자가 직접 수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10.0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1>과 같다. 응답자 특성으로 연령이 60세 이상이 50%였고, 성별은 여자가 90%, 학력은 초등졸이 36.5%였다. 응답가구의 특성으로는 부부나 부부와 아이들로 이루어진 가족이 70%였고 가구주 직업이 농업인 경우가 78.5%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00)					
변 수	구 분	빈 도(%)	변 수	구 분	빈 도(%)
나이	20대	2(1.0)	가구주 직업	농업	157(78.5)
	30대	29(14.5)		상업	11(5.5)
	40대	42(21.0)		사무/공무원	5(2.5)
	50대	27(13.5)		기술직	4(2.0)
	60대이상	100(50.0)		단순노동	12(6.0)
			기타	11(5.5)	
성별	남	20(10.0)	농사 작목 (n=157)	벼농사	111(70.7)
	녀	180(90.0)		채소/원예	33(21.0)
				축산	5(3.2)
				특용·기타	8(5.1)
학력	무학	64(32.0)	생활 정도	상	26(13.0)
	초졸	73(36.5)		중	111(55.5)
	중졸	26(13.0)		하	63(31.5)
	고졸	34(17.0)			
	대졸	3(1.5)			
가족 형태	확대가족	29(14.5)			
	핵가족	140(70.0)			
	조부모+손자녀	3(1.5)			
	혼자	28(14.0)			

2. 전통 생활용품 활용 및 필요에 대한 인식정도

전통 생활용품의 전반적인 활용도와 필요도를 조사한 결과(〈표 2〉 참조) 자주 활용하는 경우는 17.5%였고, 가끔 활용하는 경우가 46.5%로 가장 많았다.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35.0%를 차지하였고, 장식용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1.0%였다. 따라서 농촌가구의 65%정도가 전통 생활용품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 생활용품이 현대에 와서도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17.0%, 약간 필요 68.5%, 필요없다는 응답이 14.5%였다. 필요없는 가장 큰 이유로는 전통 생활용품들이 낡고 사용하기 불편해서 31.1%, 새로운 게 많아서 27.6%, 쓸일이 없어서 20.7%, 무응답 20.7%이었다.

3. 전통 생활용품 보유 및 활용실태

1) 전통 생활용품별 보유 및 활용도

가) 전통 놀이용품 보유 및 활용도

전통 놀이용품은 마을단위로 농악기를 보유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가구단위로는 윷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43.5%, 바둑/장기판 39.5%, 연 6.0%였다(〈표 3〉 참조). 가장 많이 보유되어 있는 바둑/장기판은 또한 가장 자주 활용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전통 식생활용품 보유 및 활용도

전통 식생활용품 보유정도는 체 82.5%, 소쿠리 78.0%, 시루·가마솥 58.5%, 광주리 57.0%순으로 보유도가 높았고, 자주 활용하는 품목으로는 소쿠리 44.9%, 체 41.2%, 채반 39.6%순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식생활용품 중에서 옹기는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유정도가 99.5%로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었는데, 옹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각 가구마다 6~10개 정도를 소유하고 있고, 그 용도는 된장, 고추장 보관이 96.0%로 가장 많았으며, 간장보관 용도로는 85.5%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전통 의생활용품 보유 및 활용도

의생활용품의 보유정도는 갓, 망건 2%, 짚신 4%로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 활용도도 사용하지 않거나 장식용으로 보유하는 경우가 많았다(〈표 6〉 참조).

의생활용품 중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 한복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는데, 한복 소유정도는 3~4벌이 38.5%로 가장 많았다. 한복을 활용하는 정도는 가끔씩 입는 정도가 74%로 많았으며, 그 용도로는 결혼/환갑잔치 90.3%, 친지방문 14.5%, 명절 13.9%였다. 개량한복에 대해서는 95%가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그 착용의사도 대체적으로 소극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7〉 참조).

〈표 2〉 전통 생활용품 활용 및 필요도

(n=200)

변 수	구 분	빈 도(%)	변 수	구 분	빈 도(%)
필요도	매우	34(17.0)	불필요 이 유 (n=23)	불편	8(34.8)
	약간	137(68.5)		쓸일없음	6(26.1)
	필요없음	29(14.5)		낡음	1(4.3)
		새로운게 많음		8(34.8)	
활용도	자주	35(17.5)			
	가끔	93(46.5)			
	전혀	70(35.0)			
	장식용	2(1.0)			

〈표 3〉 전통놀이용품 보유 및 활용도

(n=200)

품 명	보유정도* (n, %)	활 용 도(n, %)				계(n, %)
		자주	가끔	전혀	장식용	
연	12(6.0)	1(8.3)	10(83.3)	1(8.3)	-	12(100.0)
울	87(43.5)	5(5.7)	68(78.2)	14(16.1)	-	87(100.0)
바둑/장기판	79(39.5)	18(22.8)	45(57.0)	15(19.0)	1(1.3)	79(100.0)

* 복수응답

〈표 4〉 전통 식생활용품 보유 및 활용도

(n=200)

품 명	보유정도* (n, %)	활 용 도(n, %)				계(n, %)
		자주	가끔	전혀	장식용	
괭주리	114(57.0)	35(30.7)	63(55.3)	14(12.3)	2(1.8)	114(100.0)
소쿠리	156(78.0)	70(44.9)	77(49.4)	6(3.8)	3(1.9)	156(100.0)
둥구미	26(13.0)	6(23.1)	10(38.5)	7(26.9)	3(11.5)	26(100.0)
놋그릇	46(23.0)	1(2.2)	12(26.1)	28(60.9)	5(10.9)	46(100.0)
다식판	19(10.1)	-	11(57.9)	6(31.6)	2(10.5)	19(100.0)
떡고리	17(10.1)	-	12(70.6)	4(23.5)	1(5.9)	17(100.0)
채반	111(55.5)	44(39.6)	58(52.3)	6(5.4)	3(2.7)	111(100.0)
체	165(82.5)	68(41.2)	89(53.9)	3(1.8)	5(3.0)	165(100.0)
바가지	85(42.5)	20(23.5)	33(38.8)	16(18.8)	16(18.8)	85(100.0)
합지박	28(14.0)	9(32.1)	7(25.0)	7(25.0)	5(17.9)	28(100.0)
복조리	100(50.0)	15(15.0)	35(35.0)	19(19.0)	31(31.0)	100(100.0)
시루	117(58.5)	9(7.7)	66(56.4)	32(27.4)	10(8.5)	117(100.0)
맷돌	59(29.5)	11(18.6)	29(49.2)	13(22.0)	6(10.2)	59(100.0)
절구	68(34.0)	9(13.2)	43(63.2)	13(19.1)	3(4.4)	68(100.0)
식초병	28(14.0)	5(17.9)	7(25.0)	12(42.9)	4(14.3)	28(100.0)
가마솥	177(88.5)	44(37.6)	50(42.7)	15(12.8)	8(6.8)	177(100.0)
약탕기	99(49.5)	9(9.1)	58(58.6)	27(27.3)	5(5.1)	99(100.0)
뒤주	40(20.0)	14(34.1)	4(17.1)	13(31.7)	7(17.1)	40(100.0)

* 복수응답

〈표 5〉 옹기 보유 및 활용도

(n=200)

변 수	구 분	빈 도(%)	변 수	구 분	빈 도(%)
옹기 갯수	없음	1(0.5)	옹기 용도	곡식보관	52(26.0)
	1~5	40(20.0)		간장보관	171(85.5)
	6~10	72(36.0)		김치보관	113(56.5)
	11~15	38(19.0)		된장고추장보관	192(96.0)
	16이상	49(24.5)		젓갈보관	64(32.0)
			기타	27(13.5)	

* 복수응답

〈표 6〉 전통 의생활용품 보유 및 활용도

(n=200)

품 명	보유정도* (n, %)	활 용 도(n, %)				계(n, %)
		자주	가끔	전혀	장식용	
갓	4(2.0)	-	1(25.0)	2(50.0)	1(25.0)	4(100.0)
망건	4(2.0)	-	3(75.0)	-	1(25.0)	4(100.0)
짚신/미투리	8(4.0)	-	1(12.5)	1(12.5)	6(75.0)	8(100.0)

* 복수응답

〈표 7〉 한복의 보유 및 활용도

(n=200)

변 수	구 분	빈도(%)	변수 구 분	변수 구 분	빈도(%)
한복 소유	없음	8(4.0)	한복* 용도	결혼/환갑잔치	149(90.3)
	1~2벌	61(30.5)		친지방문	24(14.5)
	3~4	77(38.5)		여행	2(1.2)
	5~6	44(22.0)		교회/성당/절	14(8.5)
	7이상	10(5.0)		명절	23(13.9)
한복 활용도	자주	16(8.0)	개량한복	있음	10(5.0)
			소유	없음	190(95.0)
	가끔	148(74.0)	개량한복 착용의사 (n=190)	입고싶음	65(34.2)
				안입음	36(18.0)
				모르겠음	51(26.8)

* 복수응답

〈표 8〉 전통 장신구 보유 및 활용도

(n=200)

품 명	보유정도* (n, %)	활 용 도(n, %)				계(n, %)
		자주	가끔	전혀	장식용	
가 락 지	51(25.5)	22(43.1)	17(33.3)	8(15.7)	4(7.8)	51(100.0)
귀주머니	11(5.5)	5(45.5)	2(18.2)	3(27.3)	1(9.1)	11(100.0)
노 리 개	13(6.5)	-	6(46.2)	3(23.1)	4(30.8)	13(100.0)
비 녀	20(10.0)	9(45.0)	-	5(25.0)	6(30.0)	20(100.0)
쌈 지	3(1.5)	-	-	-	3(100.0)	3(100.0)

* 복수응답

라) 전통 장신구 보유 및 활용도

전통 장신구의 보유정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가락지 25.5%, 비녀 10.0%였다(〈표 8〉 참조).

마) 피복관리용품 보유 및 활용도

전통 피복관리용품 중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인두 48.0%, 골무 41.5%, 다듬이돌 21.5%였다. 이 중에서 현대에 와서도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골

무(36.1%)였다. 골무의 활용성에서 그 상품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표 9〉 참조).

바) 전통 실내가구 보유 및 활용도

전통가구의 보유와 활용정도가 대체적으로 낮았는데, 전통식 주택을 개량하면서 가구를 현대식으로 바꾼 경우가 대부분이었다(〈표 10〉 참조).

〈표 9〉 피복관리용품 보유 및 활용도

(n=200)

품 명	보유정도* (n, %)	활 용 도(n, %)				계(n, %)
		자주	가끔	전혀	장식용	
골무	83(41.5)	30(36.1)	37(44.6)	11(13.3)	5(6.0)	83(100.0)
다듬이돌	43(21.5)	9(20.9)	7(16.3)	20(46.5)	7(16.3)	43(100.0)
인두	96(48.0)	4(4.2)	26(27.1)	54(56.3)	12(12.5)	96(100.0)
홍두깨	38(19.0)	-	3(7.9)	26(68.4)	9(23.7)	38(100.0)

* 복수응답

〈표 10〉 전통 실내가구 보유 및 활용도

(n=200)

품 명	소유정도* (n, %)	활 용 도(n, %)				계(n, %)
		자주	가끔	전혀	장식용	
경대	19(9.5)	11(57.9)	4(21.1)	2(10.5)	2(10.5)	19(100.0)
농	38(19.0)	32(84.2)	3(7.9)	1(2.6)	2(5.3)	38(100.0)
문갑	32(16.0)	22(68.8)	7(21.9)	1(3.1)	2(6.3)	32(100.0)
반닫이	10(5.0)	4(40.0)	5(50.0)	-	1(10.0)	10(100.0)
이층장	13(6.5)	9(69.2)	2(15.4)	-	2(15.4)	13(100.0)

* 복수응답

〈표 11〉 기타 전통 생활용품 보유 및 활용도

(n=200)

품 명	소유정도* (n, %)	활 용 도(n, %)				계(n, %)
		자주	가끔	전혀	장식용	
담뱃대	15(7.5)	-	1(6.7)	5(33.3)	9(60.0)	15(100.0)
되	126(63.0)	57(45.2)	64(50.8)	4(3.2)	1(0.8)	126(100.0)
말	58(29.0)	20(34.5)	26(44.8)	9(15.5)	3(5.2)	58(100.0)
명석	72(36.0)	9(12.5)	32(44.4)	27(37.5)	4(5.6)	72(100.0)
지계	113(56.5)	45(39.8)	39(34.5)	26(23.0)	3(2.7)	113(100.0)
부채	33(16.5)	14(42.4)	17(51.5)	1(3.0)	1(3.0)	33(100.0)
삼태기	57(28.5)	21(36.8)	27(47.4)	7(12.3)	2(3.5)	57(100.0)
장군	16(8.0)	1(6.3)	7(43.8)	7(43.8)	1(6.3)	16(100.0)
키	163(81.5)	77(47.2)	72(44.2)	9(5.5)	5(3.1)	163(100.0)

* 복수응답

사) 기타 전통 생활용품 보유 및 활용도

농사기구나 일상생활 관련 생활용품들 중에서는 키 81.5%, 되 63.0%, 지계 56.5% 순으로 보유하고 있고 키, 되, 부채 순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1〉 참조).

2) 가구특성별 전통 생활용품 보유도

앞에서 분류한 전통 생활용품 중 보유도와 활용도가 높은 10종을 선별하여 가구특성별(응답자 연령, 가족형태, 생활정도)로 보유정도는 어떠한지를 교차 분석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선정된 10종은 바둑(놀

〈표 12〉 응답자 연령별 전통생활용품 보유도

(단위: n(%))

구 분	바둑		소쿠리		채		되		키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2,30대	20(64.5)	11(35.5)	20(64.5)	11(35.5)	16(51.6)	15(48.4)	5(16.1)	26(83.9)	13(41.9)	18(58.1)
4,50대	31(44.9)	38(55.1)	58(84.1)	11(15.9)	60(87.0)	9(13.0)	46(66.7)	23(33.3)	58(84.1)	11(15.9)
60대이상	28(28.0)	72(72.0)	78(78.0)	22(22.0)	89(89.0)	11(11.0)	75(75.0)	25(25.0)	92(92.0)	8(8.0)
$\chi^2(df)$	14.50(2)**		4.76(2)		24.36(2)**		35.79(2)***		39.80(2)***	
구 분	가락지		비녀		골무		농		문갑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2,30대	6(19.4)	25(80.6)	2(6.5)	29(93.5)	8(25.8)	23(74.2)	3(9.7)	28(90.3)	5(16.1)	26(83.9)
4,50대	11(15.9)	58(84.1)	6(8.7)	63(91.3)	19(27.5)	50(72.5)	13(18.8)	56(81.2)	14(20.3)	55(79.7)
60대이상	34(34.0)	66(66.0)	12(12.0)	88(88.0)	56(56.0)	44(44.0)	22(22.0)	78(78.0)	13(13.0)	87(87.0)
$\chi^2(df)$	7.74(2)*		1.01(2)		17.35(2)***		2.34(2)		1.62(2)	

* p<.05 ** p<.01 *** p<.001

이용품), 소쿠리·채(식생활용품), 되·키(기타 생활용품), 가락지·비녀(장신구), 골무(피복관리용품), 농·문갑(전통가구)이다.

가) 응답자 연령별 전통 생활용품 보유도

응답자 연령별로 전통 생활용품을 보유하고 있는 정도는 〈표 12〉에서와 같이 놀이용품인 바둑이 2,30대 64.5%, 4,50대 44.9%, 60대이상 28.0%로 젊을수록 보유정도가 높게 나타났고, 채, 되, 키, 가락지, 골무 등은 60대 이상으로 갈수록 보유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 외 비녀, 농은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60대 이상으로 갈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젊은층을 대상으로 전통 생활용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서는 놀이용품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나) 가족형태별 전통생활용품 보유도

가족형태별로 보면 확대가족에서 보유정도가 더 높은 것은 바둑, 가락지였으며, 되는 확대가족보다 핵가족에서 높게 나타났다.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지만 그 외 생활용품들 중에서 핵가족에서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는 농이 있었고, 나머지는 확대가족에서 보유율이 더 높았다(〈표 13〉 참조).

다) 생활정도별 전통생활용품 보유도

주관적인 계층인식인 생활정도별로 보면 상층에서는 소쿠리, 되, 키, 가락지, 비녀, 골무, 문갑 등의 보유율이 다른 층에 비해 높았고, 채, 농, 바둑의 경우는 상층과 중간층이 비슷하거나 중간층에서 보유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키를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표 14〉 참조).

4. 전통 생활용품의 활용 및 상품화 사례조사

1) 전통 생활용품 활용사례

전통 생활용품이 현대 농촌사회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민속마을 2개소, 농가 2개소, 박물관 2개소, 개인소장 3개소, 기념품 제작 판매소 2개소, 각 시군 향토유물관 등 13개소를 대상으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농가 2개소는 설문조사 결과에서 가장 많은 용품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정된 2농가를 선정하였고, 개인소장 3개소는 대중매체에서 소개된 사람을 중심으로 선정하였으며, 각 시군 향토유물관은 농촌진흥청에서 추천하고 있는 사업 실적을 참고로 하여 선정하였다. 그 결과 전통 생활용품 자체를 장식용으로 활용하거나 후세대 교육용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각 시군 향토유물관에 그 지역 주민들이 전통적으로 활용

〈표 13〉 가족형태별 전통생활용품 보유도

(단위: n(%))

구 분	바둑		소쿠리		체		되		키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확대가족	14(48.3)	15(51.7)	25(86.2)	4(13.8)	24(82.8)	5(17.2)	11(37.9)	18(62.1)	25(86.2)	4(13.8)
핵가족	58(41.4)	82(58.6)	108(77.1)	32(22.9)	115(82.1)	25(17.9)	94(67.1)	46(32.9)	108(77.1)	32(22.9)
기타가족	7(22.6)	24(77.4)	23(74.2)	8(25.8)	26(83.9)	5(16.1)	21(67.7)	10(32.3)	30(96.8)	1(3.2)
$\chi^2(df)$	4.87(2)**		1.46(2)		0.05(2)		9.15(2)*		6.99(2)	
구 분	가락지		비녀		골무		농		문갑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확대가족	9(31.0)	20(69.0)	8(27.6)	21(72.4)	14(48.3)	15(51.7)	5(17.2)	24(82.8)	6(20.7)	23(79.3)
핵가족	27(19.3)	113(80.7)	9(6.4)	131(93.6)	52(37.1)	88(62.9)	28(73.7)	112(80.0)	23(16.4)	117(83.6)
기타가족	15(48.4)	16(51.6)	3(9.7)	28(90.3)	17(54.8)	14(45.2)	5(16.1)	26(83.9)	3(9.7)	28(90.3)
$\chi^2(df)$	11.86(2)***		11.95(2)		3.92(2)		0.32(2)		1.42(2)	

* p<.05 ** p<.01 *** p<.001

〈표 14〉 생활정도별 전통생활용품 보유도

(단위: n(%))

구 분	바둑		소쿠리		체		되		키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상	11(42.3)	15(57.7)	22(84.6)	4(15.4)	22(84.6)	4(15.4)	19(73.1)	7(26.9)	26(100)	-
중	47(42.3)	64(57.7)	90(81.1)	21(18.9)	94(84.7)	17(15.3)	68(69.9)	43(38.7)	88(79.3)	23(20.7)
하	21(33.3)	42(66.7)	44(69.8)	19(30.2)	49(77.8)	14(22.2)	37(69.1)	24(30.1)	49(77.8)	14(22.2)
$\chi^2(df)$	1.47(2)		3.72(2)		1.42(2)		1.31(2)		6.84(2)*	
구 분	가락지		비녀		골무		농		문갑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상	10(38.5)	16(61.5)	3(11.5)	23(88.5)	12(46.2)	14(53.8)	5(19.2)	21(80.8)	7(26.9)	19(73.1)
중	26(23.4)	85(76.6)	12(10.8)	99(89.2)	43(38.7)	68(61.3)	25(22.5)	86(77.5)	18(16.2)	93(83.8)
하	15(22.8)	48(76.2)	5(7.9)	58(92.1)	28(44.4)	35(55.6)	8(12.7)	55(87.3)	7(11.1)	56(88.9)
$\chi^2(df)$	2.65(2)		0.45(2)		0.81(2)		2.52(2)		3.43(2)	

* p<.05

해오던 전통 생활용품들을 주민들의 자체 기증이나 수집으로 사라져가는 전통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전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기념품 제작 판매소는 이미지 및 상징성 문화상품을 개발하여 제작 판매하고 있었다(〈표 15〉참조).

2) 전통 생활용품의 상품화 현황

전통 생활용품이 현대에 와서 일상생활에 활용되기 보다는 장식용이나 기념품용으로 상품화되고 있다. 상품화 현황은 〈표 16〉과 같이 무공해 재료와 소재의 자연미, 전통미를 살려 상품화하고 있으며 다소 고급화되는 추세이다.

〈표 15〉 사례조사 대상에 따른 전통생활용품 활용 현황

구 분	조 사 지 역	활 용 용 도
개인소장	○ 충남 대전 이△△	- 전통생활용품 자체 전시
	○ 충북 충주 유△△	"
	○ 전남 강진 박△△	- 후세 교육용으로 자체 전시
민속마을	○ 서울 남산 한옥마을	- 전통생활용품 자체 전시
	○ 경북 안동군 풍천면 오미동마을 안동 풍산 김씨 종가 대	- 일상적 활용
박물관	○ 국립민속박물관	- 전통생활용품 자체 전시
	○ 태평양박물관	"
일반주민	○ 경기 화성군 태안면 윤△△	- 일상적 활용과 실내 장식효과
	○ 경남 김해시 생림면 노△△	
각 시군 향토유물관	○ '97년 농진청 사업실적 자료이용	- 주민 기증에 의한 지역 및 마을 고유의 전 통 생활용품 전시
기념품 판매점	○ 국립중앙박물관 민속기념품 판매점	- 아래의 전통생활용품의 상품화 현황 참조
	○ 서울 남산 한옥마을 상설전시장	- "
연구소	○ 한국문화상품개발연구소	- 이미지 및 상징성 문화상품 제작

〈표 16〉 전통 생활용품의 상품화 현황

구 분	활 용 및 상 품 화
식생활용품	- 무궁해 냉장고용 김치통, 건강 육각수 물병, 찬통세트, 주발세트, 밥공기, 접시세트, 양념단지, 간장 단지, 방구리, 각종함아리, 시루 등 전통기법 용기, 정수기 등
가 구 류	- 전통가구 재현품, 약장을 이용한 찰통 등
자수공예품	- 전통생활용품을 소형으로 만들어 각종 매듭이나 열쇠고리 활용, 손거울 뒷면 장식 등
기 타	- 장삼, 부들, 벗집, 보릿대 등을 이용한 각종 가방, 바구니와 등구미, 지갑, 찻잔받침, 물수건그릇, 명 함꽃이, 부로치, 넥타이핀, 손거울, 루즈갑, 목걸이 장신구 등 - 왕골을 가늘게 자르거나 달걀꾸러미 모양의 열쇠고리 등 - 조각보를 이용한 발, 쿠션, 이불, 찻보, 옷, 조각보 자체를 액자에 넣은 선물용품 등 - 한지이용 정반 및 합지, 보석함, 껌받침, 소반 등 - 짚을 이용한 실내 슬리퍼 등

V. 요약 및 결론

농촌지역 전통 생활용품의 보유 및 활용실태를 분석하고 전통 생활용품의 현대적 활용방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농촌지역 2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으며, 민속촌, 박물관, 현지마을 등을 대상으로 활용 사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전통 생활용품의 전반적인 활용도는 가끔씩 사용(46.5%)하

는 정도이면서 그것의 현대적 보유와 활용이 필요한 (85.5%)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실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는 식생활용품, 기타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보유와 활용도가 높은 반면 전통 의생활용품과 장신구, 전통 실내가구의 보유 및 활용도는 저조하였다. 가구특성별로는 바둑의 경우 2,30대 젊은 층이 있는 가구와 확대가족에서 보유율이 높게 났고, 많은 전통 생활용품들이 젊은층보다는 노년층에서,

핵가족보다는 확대가족에서 더 보유율이 높았다. 그리고 활용 사례조사 결과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교육용으로 전시되거나 장식용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무공해 식생활용구를 중심으로 자연미와 전통미를 살린 고급 상품으로 개발 판매되고 있는 추세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농촌지역에서 전통 생활용품을 계승하거나 현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적 특성에 따라 자원의 공급이 가능하고 향토성이 있는 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한다.

둘째, 소재 및 공법의 상품화를 통하여 지역고유의 특산품, 예를들면 가마니, 바구니, 등구미, 짚신, 복조리 등의 제작기법이나 제작과정을 체계적으로 복원하고 정리하여 제작과정 자체가 상품화될 수 있다.

셋째, 전통 생활용품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병행되어 전통 생활용품 활용에 대한 인식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국이나 학교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을 중심으로 전통 생활용품 제작기술 보유

자를 발굴하고 학교교육이나 사회교육을 통해 이들과 연계하여 특활시간이나 취미생활시간에 한데 어우러져 여러 전통 생활용품을 만들거나 현장실습을 통해 전통문화 교육의 체험 및 실연장소로 이용하면 특히 핵가족의 환경에서 자라나고 있는 세대들이 전통 생활용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이를 자연스럽게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고도사(1998). 옛생활문화전.
 김광언(1986). "민속물질의 연구방법". 한국민속학의 과제와 방법. 정음사.
 민속학회편(1999). 의식주 · 관혼상제 · 민속이론. 교문사.
 안동민속박물관도록.
 은양민속박물관도록.
 전완길(1994). 한국화장문화사. 열화당.
 한국민속대관(1995).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